

안철수 의원 당선후 첫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과 경쟁 하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광주·전남 등 호남의 높은 지지에 대해 “광주·전남의 기대와 지지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호남에서의 기대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상계동 ‘안철수의 정책카페’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하고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4월24일 재·보선 당선 이후 언론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안 의원은 호남 차별에 대해서는 “지역적차 해소가 시대의 과제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재정 이관과 인사당첨, 즉 인재의 균등 등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0월 재·보선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는 정치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그때 맞는 방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일부러 후보로 내지 않겠다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 후보에 관해서는 얘기할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상계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인 ‘안철수의 정책카페’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의 기대·열망 이루기 위해 최선 신당 창당은 시간표 정해지지 않아

서 아권 협조 문제에 대해 “지난 노원 재보선에서 단일화 없이 독자적 행보를 했는데 낮은 투표율에도 60%대의 높은 지지율로 이겼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 30%가 새정치를 지지했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만 찍었던 사람들 동참했다”며 독자 행보를 강하게 시사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제가 깃발을 들고 개인당을 만들면 속 시원히 신당(창당 계획)을 말할 수 있지만 만난 사람들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해서 시간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공동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하겠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본질은 다른 데도

있는데 공천제 얘기만 하고 있다”며 대답을 유보한 채, “정리해서 8~9월에 입장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이 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립상황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것은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번지더니, 사초 분실로까지 이어졌다”며 “국정조사는 목적대로 실시하고 사초 분실은 분리해서 사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든 허물 나에게... 직원들 수사 참담 정부 대승적 차원 성공개최 지원해야”

강운태 광주시장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사과

강운태 광주시장은 28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 공문서 위조논란에 대해 “모든 허물은 시장의 책임”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또 “공문서 위조는 공무원들이 대회 광주유치만을 생각한 나머지 빚어진 실수”라며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검찰의 선처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제는 갈등을 씻고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확정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광을 안고 기쁨을 누리야 할 이 순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초안이었지만 즉시 시정되었지만, 경위야 어찌 됐던 이 부분을 사전에 살펴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마음 수그러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며,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역사적인 과업을 이뤄내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일해 온 사랑하는 동지들이 포상연봉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한 없이 안쓰럽고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일은) 사리 사욕이 아닌 오직 광주 유치를 생 각한 나머지 빚어진 실수이고 과오”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부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라고 강조하고, 특히 “필요할 경우 지급이라도 (제가) 검찰에 나가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선처와 시민들의 이해를 호소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경사요, 국민적인 영광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점에 정부와 광주시간 갈등이 노출되는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는 문제가 된 초안의 잘못된 점을 즉시 바로잡았고 중간본과 최종본에는 원본을 그대로 첨부해 유치의 폐가를 이뤄냈다”며 “그 과정에서 광주시의 미숙함이나 잘못이 있다면 모든 직책을 유치위원 장인 시장에게 묻고 이제는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마음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강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분명히 광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패거로, 모처럼만에 찾아온 지역발전의 호기”라며 “이제 지역 내 갈등을 씻고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이 이처럼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역에서도 ‘정부에 대해 성공개최와 광주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불교승보회 회장과 광주·전남 불교신도회 회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수영대회 유치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패거”라며 “정부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검찰수사와 국비지원을 분리해 처리하되, 국민대통합과 지역 낙후성을 감안해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와 수영연맹 등 51개 기맹단체 회장도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 지도록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철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0·30 재보선 석달 앞... 거물급 귀환무대 되나 7~9곳서 치러질 듯

올해 하반기 열리는 10·30 재·보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10월 재·보선은 향후 정치권의 판도를 흔들 전초전 성격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 8개월에 대한 평가라는 정치적 의미 때문에 여야 간 한치의 양보 없는 선거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초 10곳 이상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만 대략 7~9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미니 총선’ 규모까지는 아니어도 수도권, 충청, 경북, 호남 등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민심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당선 무효형을 받고 최종심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 서구·강화읍, 경기 수원, 경기 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경북 구미·김천, 전북 전주완산을 등이다.

여야 모두 불발에서 외부 인재 영

입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지난 4월 재·보선과 같이 거물급 정치인의 귀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충남 천안 출신의 서정원 전 대표가 충청 지역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상임고문이 독일 체류를 마치고 돌아와 수원에 출마하고, 경기 평택에 정장선 전 의원, 전주완산에

는 정동영 상임고문이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든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폐쇄적·대결적인 구도를 뛰어넘는 대안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독자세력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민주당과의 인물 대결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은 지방선거에서 중앙의 ‘입김’을 제거하는 실험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특집
2막의 열정, 실버 스타들
시인, 영화감독, 바리스타, 미술관 도슨트로 '제2의 청춘' 즐기는 실버들

기획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안
“이의 있습니다”
문광부 설계에 대한 반론과 대안

7월 27일 발매

예향 초대석 | 우리 음악의 당당한 자존심
가야금 명인 황병기
대중 같은 음악 철학과 작품 이야기

마주앉은 책과 삶 | **시인 안도현**
세상 향해 흐르는 시인의 시심과 詩行일치의 삶

이달의 아티스트 | **“무대는 우리의 운명”**
손잡고 꿈의 한길 걸어가는 연극인 부부 오성완 이당금

히말라야강철훈가 라운드트레킹 상
“열대우림에서 빙하까지”
황홀하도록 장엄한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특별한 축제
2013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올 가을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적 뮤지션들

스타 데이트
‘백년의 유산’ 악역연기로 주목받은
광주출신 탤런트 윤아정

문화역사 기획
황진이 앞자리 매창의 문화와 추억을 만나는
부안 매창공원과 변산반도

세계 미술관 기행
싱가포르 아시아문화박물관

스페셜 인터뷰
광주향일학생운동 만화
‘봄, 우레, 그리는 한국 사실주의 만화의 대가 ‘이희재’